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독특하신 예수님의 치유 성경: 마가복음 7장 31-37절

Tag: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막7:31-37)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대단히 독특하셨다.

1. 대단히 간결하였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부탁해도 병을 고쳐 주셨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쇼맨십이 없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다.

-맺가가 없다. 단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 뿐이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고쳐 주셨다. 주도적이었고, 사람마다 버전이 달랐다.

2. 환자가 치유받는 동안 고통스럽지 않았다. No 마취.

-진단을 위한 첨단 장비 불필요.

-피를 뽑거나, 굽거나, 방사선 촬영 하지 않는다.

-치유 자체가 위험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기로 서약하지 않았다.

3.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 No 재발, No 부작용.

-내일 또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다.

-필요할 경우 간단한 후속조치를 명하셨을 뿐이다. (먹을 것을 주어라. 죄를 짓지 마라. 제사장에게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4. 권위적인 절대적 치유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치유하셨다.

-마치 병마를 꾸짖어 내어 쫓듯이 병의 주요 원인을 없애버리셨다.

-다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치유하지 않으셨다. (고라신, 벧새다.-갈릴리바다 북쪽에 위치함.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전도하신 지역. 악한 자들, 독을 품은 자들, 교만한 자들, 배척하는 자들은 고치지 않으심.)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은 고치실 수가 없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도 태도를 돌이켜 고침 받게 하고 싶으셨다는 뜻이다. 예를 쓰셨으나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결국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치유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5. 조건이 없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본인의 의지일 뿐이지, 그 자체에 치유의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햇빛을 보고, 문 안에 있으면 햇빛을 보지 못한다. 믿음이란 마치 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에 해당한다. 내가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에 햇빛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햇빛은 언제나 효력이 있지만, 내가 문을 열고 나와야 그 효력을 얻는 것이다. 즉, 믿음 그 자체에 어떤 치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거나, 믿기지 않거나,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는 앓돼, 그 병은 앓돼 라는 마귀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다. 믿는 기능 자체가 고장난 사람은 없다. 다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더 믿는다는 뜻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치유는 간절히 필요하다.

오늘날 병원이 과거에 비교해서 너무 잘 발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에는 현저하게 못미친다. 예수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 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독특하신 방법으로 고쳐 주신다. 심지어 이제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나를 고치신다. 아멘.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주로 고라신과 벳새다 지역에서 전도하시고(갈릴리 북쪽), 서쪽 두로와 시돈을 돌아 다시 동쪽으로 와서(고라신을 거쳐 벳새다를 거쳐) 데가볼리(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지역)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 (갈릴리 동쪽이었을 것임)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

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 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 장애가 있는 본인이 찾아온게 아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함.
- 그는 말을 하긴 하는데, 더듬었다.
- 아마도 그가 온전한 때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 예수님의 치유
- 그를 따로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심.
- 그는 듣지도 못하는 자. 볼 수만 있는 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그의 마음을 열 것이기 때문.
- 아마도 그는 오래전 어렸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귀와 입이 닫혔을 가능성이 있다.
- 극 소심한 상황이므로 군중이 없는 곳이 필요하였다.
- 심리치료인 셈.
- 손가락을 귓 속에 집어 넣으심. 막힌 귀를 뚫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줌.
- 예수님의 침을 손가락에 적셔서 환자의 혀를 침이 묻은 손가락을 대시고 혀바닥을 풀어 헤치셨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적 행동으로 마치 혀바닥에 세레를 베풀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동시에 혀를 풀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함. 그렇게 함으로 혀에 맺혀있는 저주를 풀어버리심. (왜냐면 눈만 뚫려 있으니까.)
- 철저하게 환자 중심적 치유였다.
- 단순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셔도 고치실 수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 이 사람은 믿기 힘들. (믿음과 스테이크)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더하심.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심.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은 치유기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치유와 기적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탄식하셨다고 번역했는데,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이 모음을 발음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에, 우-아마 따라 해 보라는 제스처가 있었을 것이다.) ‘에’가 가장 적절한데, ‘에바다’가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이다.

-에바다는 열려라, 풀어져라, 막혀있는 것이 깨어져서 터져라 는 뜻의 명령어이다.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제부터 말을 배우는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 분명해 졌다는 뜻. (실어증)

-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막7:31-37)

예수님은 이런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갈망하자!

치유의 기도. (훈련)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를 깨우치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 주소서.

<찬양예배>

제목 : 리더들의 기도제목 성경: 에베소서 1장 16-23절

Tag: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자. 특히 부원들을 위해서.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 삼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곧 신앙고백임)

-구주 예수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 주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부르신 이유는 미래를 위하심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고치시기 위함임.)

-개신교 자체가 곧 개혁적임. 따라서 기도도 개혁적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한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게 하소서.

-작은자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함. 작은 자들의 간절한 소망.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기도문.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적인 기도임.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

-정확한 주권개념이 중요하다.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1:16-23)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만물 안에 있다.

-교회는 충만함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